

강진 ‘반값 여행’ 국가 정책화...16곳 시범 도입

65억 투입 지역사랑 휴가지원 추진

전국 16개 지자체 선정...50% 환급

개인 10만·단체 20만원 지역상품권

강진군이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반값 여행’이 국가 단위 관광 정책 모델로 전격 격상돼 전국으로 확산된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전국 8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총 16개 지자체가 사업지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권에서는 강진군을 포함해 영광군, 해남·고흥·완도·영암군 등 6개 군이 이름을 올렸다.

타 권역에서는 강원 평창·영월·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밀양시와 하동·합천·거창·남해군이 선정돼 총 65억원의 국비가 해당 지역 관광 활성화에 투입된다.

환급 구조는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방식과 동일한 50% 페이백 시스템으로, 1

8세 이상 국민이 해당 지역 방문을 위한 사전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현지에서 숙박과 식사 등에 지출한 경비 내역을 증빙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제액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당 최대 한도는 10만원이며, 2인 이상 단체 여행객은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연말까지 해당 지역 내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지역 특산물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강진군의 독자적인 시책이었던 반값 여행은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입증하며 국가 정책화의 물꼬를 텄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진군 사례를 꼽으며 “동네에서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구조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2월25일 청와대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줄이되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 상권에 돌아가도록 설계된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제도의 전국 확산에 따라 강진군민들 역시 타 지자체 방문 시 동일한 반값 혜택을 누릴 수 있

게 됐다.

군민들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타 시범 지역을 확인하고 사전 신청을 거치면, 현지에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의 절반을 돌려받아 여행 경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방 소멸 위기와 침체 속에서 자체 발굴한 정책이 국가 관광 정책의 표준 모델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군, 친환경 농업 생산 체계 구축 ‘시동’

51개 사업 207억원 집중 투입

비료·방제 등 생산 지원 강화

해남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을 바탕으로 유기농 중심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총 51개 사업에 207억원의 예산을 투입, 자체 지원과 청년농 육성 등을 전면 추진한다.

해남군의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유기농 2천493ha, 무농약 2천444ha 등 총 4천940ha로 전년 대비 470ha 증가했다.

기후변화대응전략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농업 인증 면적 역시 1천89ha로 전국 최대 규모다. 앞서 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께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친환경농업대상’에



서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올해 인증 농가에 직불금과 함께 인증비의 80-100%를 보조하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품목별로 최대 18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1천600여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463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높인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자재 지원도 이어가며, 유기질 비료 4만2천t을 5천여 농가에 공급하고, 토양 개량제 68만1천포를 6개 읍·면에 배

〈사진〉

부한다. 이밖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새끼 우렁이 구입비 전액 지원과 공동 방제 농기계 보급도 병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지역 농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아리랑 베이스볼타운’ 조성 본격화

임회면 3만5천평 복합단지 조성

야구장 3면·호텔 등 민간 투자도

진도군은 사계절 전지훈련 인프라와 첨단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스포츠·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거점 확보에 나선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전남도로부터 ‘진도아리랑마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마치고 임회면 상만리 일원 약 11만5천702㎡(3만5천평) 부지에 ‘진도아리랑 베이스볼타운’을 조성한다.

〈조갑도〉

이번 사업은 야구 시설을 중심으로 이 스포츠



경기장과 숙박 시설을 연계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단지에는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는 에어돔 야구장 1면과 국제 규격 야구장 2면 등 총 3면의 구장이 조성돼 전국 야구단의 겨울철 전지훈련 중

심지로 활용된다.

더불어 체류형 관광객 수용을 위해 약 200개실 규모의 3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서며, 해당 호텔 지상 10층 구간은 시공 효율이 높은 조립식 건축(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건립된다.

이와 함께 이스포츠 및 문화 콘텐츠 복합 시설을 연계해 연중 운영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초기 용역비를 선 투자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준비 과정에서 약 30억원의 민간 자본이 집행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베이스볼타운은 스포츠와 관광이 융합된 진도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 모델”이라며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 단위 행사 유치와 체류형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신안군 선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섬 수선화 축제’가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선도를 찾은 관광객들.

〈신안군 제공〉

신안 선도 ‘수선화’ 1천4만송이 개화 절정

신안군 선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섬 수선화 축제가 주말을 맞아 개화 절정기를 맞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봄철 생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2026 섬 수선화 축제’에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 7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

계됐다. 현재 선도 전역에는 약 1천4만송이의 수선화가 개화에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관광객이 노란색 의상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테마 공간을 비롯해 주요 산책로 포토존, 수선화 그림 그리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된다.

/신안=양홍 기자

군은 이번 주말 관람객이 대거 집중될 것에 대비해 입도객 수송 여객선 운항을 대폭 증편했으며, 현장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람 환경을 정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수선화 개화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며 “축제가 종료되는 12일까지 여객선 증편 등을 유지하고 관람객 편의와 안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 참여자 모집

24일까지...최대 300만원 지급

무안군은 9일 “오는 24일까지 초기 창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수익 창출 등을 돕는 ‘2026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 15명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사업을 둔 19-45세 청년 중 창업 예정자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초기 사업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최대 3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제품 개발 및 등록, 홍보, 전문가 자문, 교육 등 사업 안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할

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와 공과금, 자산성 물품 등 사업 직접비와 유류 비용 등 목적과 무관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매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군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함평군, 영농철 ‘일제 출장의 날’ 운영

전문 생육 관리 기술 등 안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맞춤형 영농 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월 2회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영농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술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한다.

〈사진〉

센터 직원들은 지역 농가와 시범 사업장을 방문해 병해충 조사, 소득 요령, 노지 작물 육묘 관리,

소득 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등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전문 생육 관리 기술을 집중 전수한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해 불철저한 피해 예방 기술을 적극 안내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 지원을 병행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고용부 목포지청, 건설 현장 안전 캠페인

120여개사·2천여명 참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지역 내 대형 공사 현장부터 중소기업 현장, 초소형 지붕 작업장까지 아우르는 총출동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9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전남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영암 삼호실내체육관에서 ‘건설현장 세이프티 웨이브(Safety-Wave) 릴레이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발대식에는 대형 건설현장 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협의체, 초소형 지붕 추락사고 예방 안전지킴이 등 건설업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해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했다.

캠페인은 ‘안전 바통 터치’ 형식으로 전개되



며, 이달부터 매월 6개 건설 현장을 순회하며 연말까지 총 120여개 건설업체와 2천여명의 근로자가 릴레이로 참여할 예정이다.

각 참여업체는 캠페인과 함께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현장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주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재 없는 건강한 무사고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